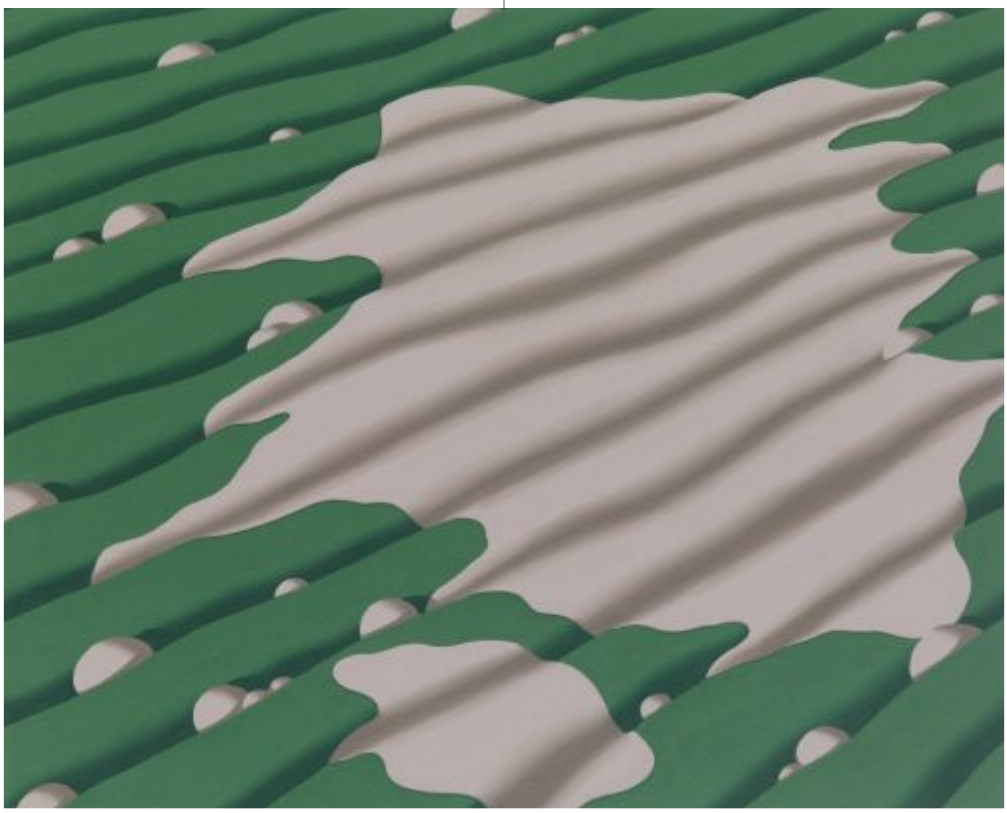
인지된 풍경U

EXHIBITION

2013 / 07 / 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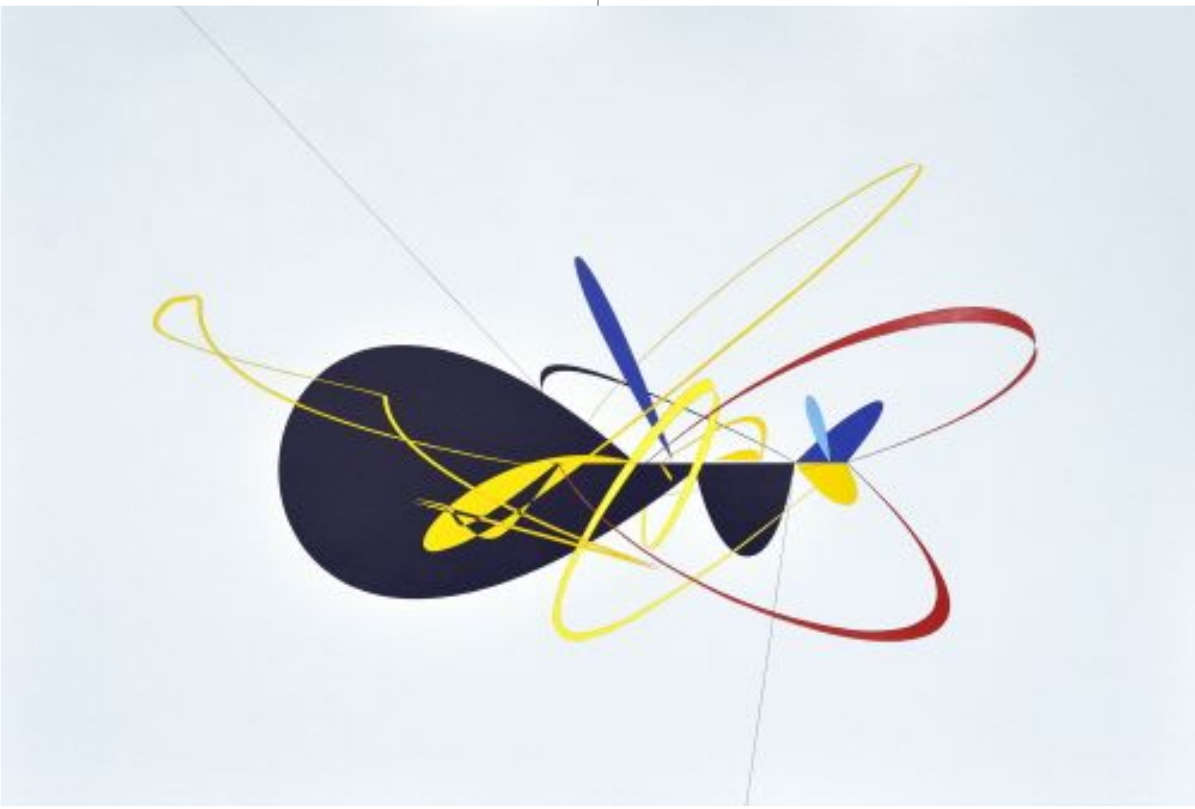
ART IN CULTURE



송명진 <Thin Solid> 캔버스에 아크릴릭 72×91cm 2011

권혁 <Energyscape> 캔버스에 아크릴릭 65×91cm 2013

이정배 <설악> 한지 피그먼트프린트 수묵 드로잉 88.5×131.5cm 2012



경현수 <Debris Division 4-2> 캔버스에 아크릴릭
130.3×193.9cm 2013

참여 작가

글 | 오윤정 인턴기자